

한전, 적립금 17.7조로 1년새 58% ↓ ...하루 이자만 74억

최근 5년 평균 적립금 평균 47조원서 '뚝'
 계속된 적자로 누적 46.9조·부채 201.3조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적립금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급감했다. 부채도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하루 평균 이자비용이 74억원대로 5년 만에 약 3.8배 증가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한전재 발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 적립금은 지난해 4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전재 발행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전 자본금이 3조200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역추산한 값이다. 한전재 발행한도는 기말결산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당해연도 한도는 전년 결산기준으로 산출된다.

의원실에서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전 적립금은 평균 47조원대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50조8000억원, 2019년 49조7000억원, 2020년 47

조1000억원, 2021년 48조2000억원, 2022년 42조7000억원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가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약 2.4배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말 한전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재 발행 한도를 늘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한전재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에서 104조5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사이 42조70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한 탓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시중에 존재하는 한전채는 69조5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지난 한해에만 32조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약 32조6500억원의 영업손실이 집계됐으며, 올해 2분기도 8조45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액은 2분기말 기준 46조9516억원으로 불어났다.

계속된 적자로 한전 부채액은 200조원을 넘어섰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 2021년 말 145조원 규모에서 1년 반 만에 38.1% 증가한 3500억원으로 불어나며 201조3500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지난 2018년 19억4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74억5000만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 통과한 '한전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올해 전기요금 조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적립금 급감과 이자 증가 등이 위협한 수준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이원영 의원은 "적립금이 줄어들면 한전재 발행 한도 역시 줄어들면서 빚으로 돌려막기 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대로 한전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막대한 부채 때문에 매일 이자를 74억5000만원씩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착취이자 책임 전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용일기자



벤츠, '더 뉴 GLE' 5종 라인업 판매 개시

상품성 개선한 4세대 부분변경 GLE 등등 공개

메르세데스벤츠는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GLE의 4세대 부분변경 등 5개 모델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세대 부분변경 '더 뉴 GLE' 라인업은 SUV, 쿠페, 고성능 AMG 등 5종 모델로 구성된다.

SUV모델인 더 뉴 GLE는 ▲GLE 300 d 4MATIC ▲GLE 450 4MATIC ▲AMG GLE 53 4MATIC+ 등 3개 모델이다. SUV 쿠페인 더 뉴 GLE 쿠페는 ▲GLE 450 d 4MATIC 쿠페 ▲AMG GLE 53 4MATIC+ 쿠페 등 2종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

델인 GLE 400 e 4MATIC 쿠페 모델도 출시한다.

더 뉴 GLE 라인업은 파워트레인 및 안전·편의사양 등에서 한층 개선됐다.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고,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가 함께 적용됐다. 최대 15kW의 전기출력과 200Nm의 토크를 지원한다.

편의사양으로는 오프로드 주행 모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 360도 카메라 주차 패키지 등도 도입했다. 가격은 1억1300만원부터 시작하며 AMG 모델은 1억5500만원 이상이다.

오유나기자

에스알 '경전·동해·전라선' 운행 지역 호텔과 패키지 상품 출시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내달부터 경전·동해·전라선 운행 확대를 기념해 SRT 이용객에게 지역 대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SRT×호텔 연계 특별 프로모션 상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SRT×호텔 연계 프로모션은 전주, 포항, 여수지역 대표 호텔과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SRT 승차고객 대상으로 각 호텔별 객실, 조식, 부대시설 이용 패키지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10월31일(화)까지 라한호텔 전주·포항, 라마다프라자바이윈덤호텔 여수 체크인 시 SRT 승차권을 제시하면 SRT×호텔 연계 프로모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라한호텔 전주는 '가을엔 SRT 타고 전주여행'을 테마로 객실(시티뷰 디럭스 온돌, 시티뷰·한옥뷰 패밀리 트윈), 전주한옥마을 쿠폰북(전주산책 커피 2잔 포함) 제공, 낮 12시에 퇴실 할 수 있는 최저가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한 투숙객에 한해 헬스장 무료이용을 비롯해 조식, 루프탑 야외수영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라한호텔 포항은 '가을엔 SRT 타고 포항여행'을 테마로 오션뷰 객실(디럭스 더블·트윈, 코리안 스탠다드·디럭스 더블, 코너·센터·패밀리 스위트)과 조식, 오후 1시 퇴실할 수 있는 최저가 패키지를 선보인다. 투숙객에 한해 비즈니스 센터 무료이용과 요트투어, 서핑강습 등 액티비티 할

전주·포항·여수지역 대표 호텔과 국내여행 활성화



인택이 제공한다.

라마다프라자 바이 윈덤 호텔 여수는 SRT 고객전용 제휴 프로모션 패키지로 객실(슈퍼리더 더블·트윈, 디럭스 더블·트윈, 프리미어 더블·트윈), 조식, 수영장, 쥘트랙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수평선 너머 쪽 뻗은 남해바다를 마주보는 인피니티 풀과 아름다운 바다 안으로 폭 감싸줄 수 있는 국내 최고 높이의 쥘트랙을 느껴볼 수 있다.

SRT×호텔 연계 프로모션에 대한 운영기간,

특별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SRT 승차권 홈페이지(etk.srail.kr)와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호텔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중구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제 SRT로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을 따라 즐거운 열차여행을 떠나고, 지역 호텔 연계 프로모션 상품을 이용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참이슬, 제이에스티나와 협업...한정판 굿즈



퍼어리와'오픈링'한 세트 구성했다.

두 브랜드에선 모델로 아이유가 활동 중이다. 아이유는 참이슬 최장수 브랜드 모델로 9년째 활동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와는 2020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1년 제이에스티나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주류 브랜드와 주얼리 브랜드가 협업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이때 출시한 '펜던트 목걸이'와 '소주잔'은 판매 1분 30초만에 500세트가 모두 판매됐다.

이번에 출시한 협업 굿즈는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에서 8월 28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총 500세트로 세트당 판매가는 8만9000원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 실 상무는 "참이슬의 깨끗한 이슬방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이에스티나와 새로운 협업을 시도하게 됐다"며 "참이슬의 이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

LG전자, 유럽시장 겨냥 에너지 고효율 가전 라인업 강화

세탁기·건조기·냉장고 등 다양한 고효율 가전 전시



LG전자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춘 다양한 생활가전 신제품을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내달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넷제로 하우스(Net-Zero House)'를 테마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유럽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전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럽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지난해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고객들의 고효율 전기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LG전자는 인버터 모터와 컴프레서 등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고효율 가전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LG 드럼 세탁기는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등급보다 약 40% 효율이 더 높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도 장점이다. LG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6모션으로 섬세한 세탁을 구현해 세탁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탁 과정에서 옷감의 마찰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60% 감소시킨다.

건조기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A+++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차세대 친환경 냉매 R290을 적용했다.

냉장고 신제품은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0% 정도 뛰어난 효율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LG전자 등급 모델 중 최저 소비전력 29dB의 저소음도 장점이다.

LG전자는 넷제로 하우스 전시장에서 고효율 가전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홈 에너지 플랫폼(Home Energy Platform)'도 선보인다. 관람객은 LG씽큐(ThinQ) 앱을 통해 편리하게 가전을 제어하고, 에너지 저장 및 소비량을 모니터링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Air to Water Heat Pump) 방식의 고효율 냉방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가정용 ESS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LG전자는 별도로 마련한 빌트인 전시장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스타뷰 오브, 식기세척기, 후드 일체형 인덕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등 다양한 빌트인 신제품을 전시한다.

서선욱기자